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6시 퇴근 월급 190 vs 매일 야근 월급 350

20 YEARS
대학내일

Weekly

Cover model
송채운 성균관대 19

직장생활대리 체험
기능한콘텐츠 4

이것만안해도 중간이상!
펍타치는PPT 가이드라인

편린이름스결과고
정신건강되찾은셀

No.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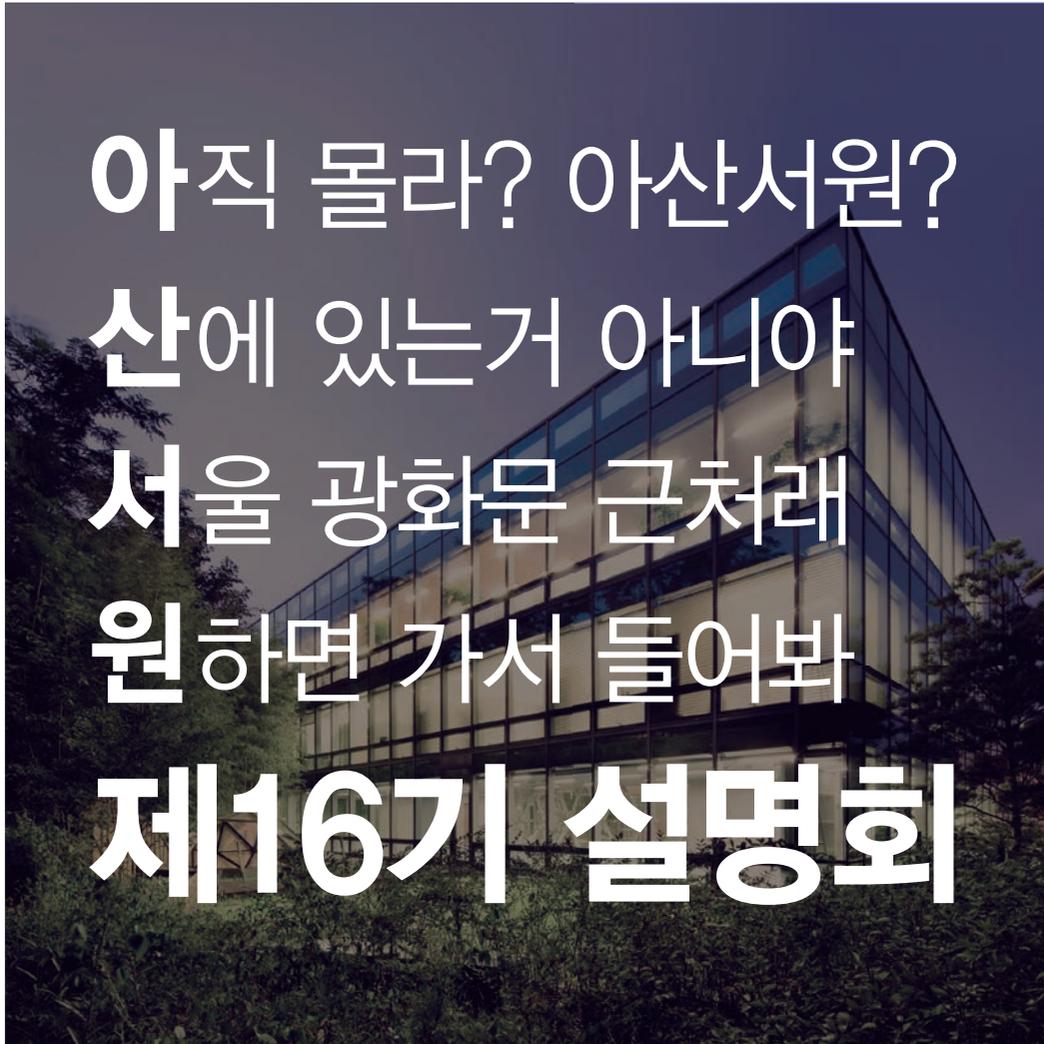
2019.5.13~2019.5.19

ISSN 2465-7883



ASAN_ACADEMY

아산서원 제16기 모집 중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대한민국 인재 모집
 #1년간 국내 인문교육, 해외 인턴십(워싱턴 및 베이징), 기숙사 생활!
 #전액지원(교육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
 #제16기 설명회 5월 17일(금) #온라인 지원 마감 6월 5일(수)
 #참가 신청 #아산서원 홈페이지(www.asanacademy.org)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아산서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송채린

성균관대 연기예술학 19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PHOTOGRAPHER 배승빈
STYLIST 김아영
HAIR&MAKEUP 진아, 소희

#리얼하이로맨스

웹 예능 <리얼하이로맨스>에 출연 중이에요! 아무래도 로맨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다 보니 함께 출연하는 친구들에게 심쿵(?) 하는 순간이 종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심쿵 포인트를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준혁이는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오빠 같은 느낌이 나요. 지훈이는 웃는 모습이 예쁘고요. 진경이는 매사 장난스러운 아이인데, 갑자기 진지하게 말을 걸 때 은근 심쿵하더라고요. 강주는... 진짜 너무 귀여워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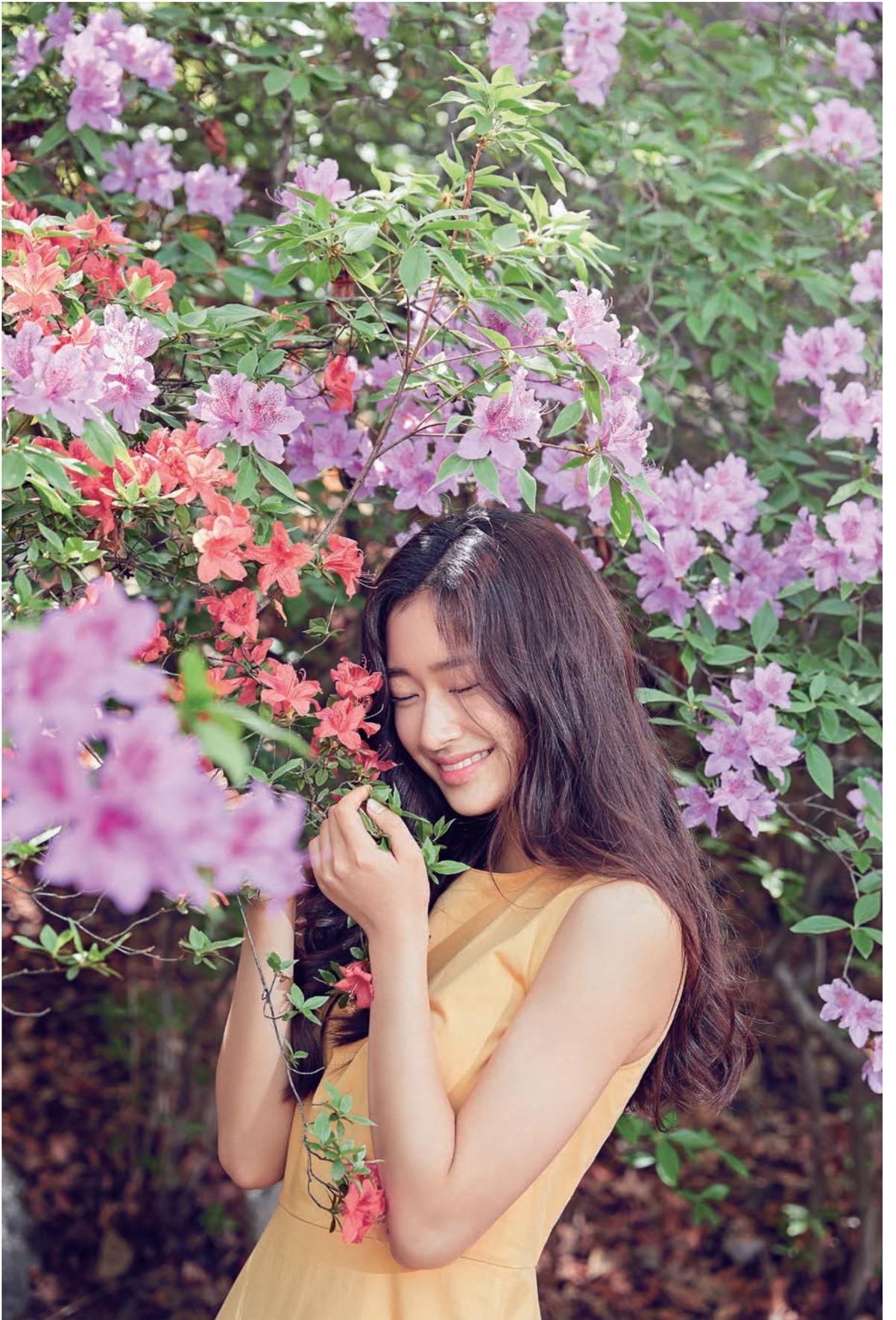
#스무살의버킷리스트

스무살이 되고 나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리얼하이로맨스>에서 살짝 공개했었는데, 하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열심히 적어뒀거든요. 음... 그중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는 건 아마도 곧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친 만들기도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이걸... 성공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인생_로맨스_영화

저는 로맨스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특히 이런 봄날엔 로맨스 영화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인생 로맨스 영화'로 꼽는 세 편이 있는데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 <쉐이프 오브 워터> <내 사랑>이에요. 세 편 모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지만,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라 참 좋아해요.





#허당_채윤

첫인상만 보고 저에게 벽(?)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세상 허당이거든요! 친구들도 “처음엔 완벽해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허당기 넘친다.”는 애길 자주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을 잘 챙기는 편이지만, 친구들이 저를 챙겨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하!

#액션_고수

요즘 제가 한창 꽃혀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검술...! 드라마 준비 때문에 액션 스쿨에 다니면서 검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처음엔 살짝 겁도 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돼요. 검술을 열심히 익혀서 액션 고수가 되는 게 요즘 제 꿈이에요!(웃음)

#연애는_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서로의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귀면 사귄수록 점점 더 빠지는 타입이라 상대방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쓰고 보니 제일 거창한 바람 같긴 하네요. ㅎㅎ 언젠가는 저도 그런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겠죠?





“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서로의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런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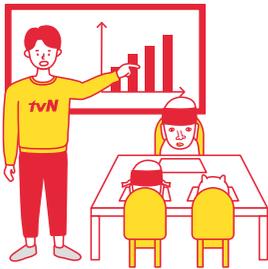


tvN을 반짝일 금손을 찾습니다!

GOLD FINGER

골드핑거
11기 모집

1



콘텐츠 마케팅 기획
마케팅 금손이 되고파?

2



현직 PD 및 마케터 특강
금손 선배를 보러 와!

3



바이럴 콘텐츠 기획/제작
유튜브 금손은 나야!

4



<tvN 즐거움전 2019> 기획/참여
즐거움전 기획도 금손이!

5



20대 트렌드 팩트체크
금손이 말하는 트렌드!

✦ 모집 일정 ✦

서류지원 2019년 5월 13일 ~ 6월 5일 24:00 까지

발대식 2019년 7월 4일

활동기간 2019년 7월 ~ 2020년 1월

✦ 지원 방법 ✦

+ 골드핑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www.chtvn.com/goldfinger)

+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 및 과제 제출
(tvngoldfinger.com@gmail.com)

✦ 활동 혜택 ✦

+ 활동우수자 대상

CJ ENM 대졸 공채 미디어 마케팅 직무 지원시 가산점 혜택

+ tvN 콘텐츠 관련 강의 제공 (콘텐츠 제작, 마케팅, 뉴미디어 등)

+ tvN 콘텐츠 방청, 제작발표회 참여

+ 월별 활동 지원금, 활동 인증서 발급

+ 활동기간 내 제작 콘텐츠 공식 SNS 업로드 및 tvN 온에어 가능

Contents

No.890
2019.5.13~2019.5.19

13
Outcampus
날씨는 좋은데 약속 없는
너를 위한 활동 BEST 4

14
Focus
월드잡플러스

16
Ctrl c + Ctrl v
알바대타 부탁 문자
대신 써드립니다

17
20's Voice
원망의 끝에서 마주한
비정규직 아버지의 시간

18
Question
숨어서 하는 취미
나만의 길티 플래저는?

20
Pick up
첫 직장 생활
대리 체험 가능한 콘텐츠 4

22
Do or Don't
럽스타그램 해요 말아요?

24
Major in
간호학과가 알려주는
건강에 대한 속설, 오해와 진실!

36
Ssul
주변인과 손절하고
정신 건강 되찾은 썰

38
Study
평타 치는 PPT 가이드라인

40
Job
교생의 하루는 어떨까요?

42
Global
거기 살아보니 어때요?
캘리포니아로 간 20대

44
Think
여행에서 본전을 뽑는다니,
본전이 뭐길래

46
Puzzle
기명균의 날말퍼즐



27

SPECIAL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
좋아하는 일이면서 돈도 많이
주고 업무강도도 적당한 신의
직장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연봉
- 좋아하는 일
- 사내 분위기
- 워라밸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sseung@univ.me

매거진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책임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에디터
서재경 suhjk@univ.me
이시은 sieun@univ.me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이너
남미가 miga@univ.me

디지털

파트장
조웅재 woongja1@univ.me
책임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에디터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박소희 green@univ.me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책임디자이너
이승은 lidy@univ.me
디자이너
김지현 uujuinn@univ.me
김은미 mongmigu@univ.me

영상

파트장
김효은 hiho@univ.me
책임에디터
김슬 dew@univ.me
에디터
김준용 dragon@univ.me
배다솔 sombang@univ.me
이지애 ja.lee@univ.me

브랜드 저널리즘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조아라 ahrajo@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권혜은 hyen@univ.me
에디터
김련욱 kyo@univ.me
정우미 woomi@univ.me
노치원 kingofamonkey@univ.me

Staff

발행 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공동 창업자 유영기 김창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고문 박재항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본부

본부장 김부진
파트장 조소라
수석 이지연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현
책임매니저 신예지 손유리 조하니
김지영 이혜민
매니저 정선미 권소영 안예지 조지은
사원 최선영 최현정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파트장 이재우 홍보미 김영현
수석에디터 김민정
책임매니저 유효정 옥혜진 이인재
매니저 백소연 한은지 김준호 유슬하
사원 이하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안길상
파트장 문왕기 김동하
책임매니저 한희진 양현정
매니저 신호영
사원 김현영 윤형철

마케팅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지혜
파트장 김영수
수석 신현정 김예림
책임매니저 허이솔 박미소 송태광 정영수
책임에디터 정혁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본부

본부장 박배길
수석 황정은
파트장 김효선
수석에디터 임영화
책임매니저 김규태 김다은
책임에디터 이은지
매니저 박태욱 김유진 정규홍
사원 이재민

마케팅커뮤니케이션 5팀

팀장 박종남
파트장 이상복
책임매니저 김애리 정유진
매니저 양원희 이나윤 한문규
사원 박소희 김성환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배모문의 02-6925-0704 인쇄 프린피아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univ20.com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마케팅커뮤니케이션 6팀

팀장 이수이
책임매니저 이유리
매니저 배용근 강지인 황주랑
사원 유승빈

마케팅커뮤니케이션 7팀

팀장 탁귀영
파트장 박지호 최진성
책임매니저 김가연 최정인 조현준
매니저 봉정중 강혜진 임현정 박상덕 이민우
에디터 김지후
사원 김효진 김경진 양재희

20대커뮤니케이션부문

부문장 이성진
매니저 김수연

유스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파트장 명범준 양상범 박정은
매니저 조서영 박상현 최은원 김나래 김나영 신은지
사원 장비준 서주희 최우혁 조범식

20대연구소

소장 김영기
파트장 효영성 송혜윤 남민희
수석연구원 문송이 박진수
책임연구원 이재훈 김금희 지승현
연구원 정은미 장지성 신지연
매니저 김다희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

센터장 김범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파트장 남승혁 김찬우
책임매니저 김현주
매니저 고민지 이아름 송재은
사원 박아현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파트장 최은혜
책임매니저 권예빈 김민주
매니저 이경수 송수진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이진희
파트장 이교영
책임매니저 홍새봄
매니저 심미아 신예지 박소영
사원 심은령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센터

센터장 이혜정

디지털디자인팀

팀장 조현상
책임매니저 박지성
매니저 서지희 임다정 오은정 전계은 김희재

디지털영상팀

팀장 전단비
매니저 김자인 신재민 홍서연 최용진

디지털콘텐츠팀

팀장 김현송
파트장 정진복 양준호
책임매니저 서준원 이연제
매니저 이경민 최현정 한동주
김소영 실다운 박지원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파트장 진우경 강국현
수석 이재혁
책임매니저 정혜인
매니저 송정훈 안창민 이재은 김지수
김하영 윤철환
사원 황현아 김하늘

영업혁신센터

부대표 이태영
수석에디터 이정섭
수석매니저 차정기
책임매니저 최규성
사원 박성현

기획혁신센터

센터장 정은우
수석 이윤경
매니저 이혜민 김소연

비즈니스혁신TFT

책임매니저 윤정심

이비즈(E-BIZ)팀

팀장 권관진
파트장 김부록 심재운 김진외
수석 하윤희 고은영 강주빈 이은주
박미란 정현욱
책임매니저 김상호
매니저 박혜진 조이솔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은선
책임매니저 원중구

경영지원팀

수석 김소연 윤수정
책임매니저 김주은 이선미

인재경영팀

팀장 박준하
책임매니저 김이슬
매니저 이상엽 이승훈

인턴

김유정 김은정 문유빈 박운서
박지원 이윤진 임효진 정하나
정지수 정준수 최지혜 신상범
황선욱

날씨는 좋은데 약속 없는 너를 위한 활동 BEST 4

제가 좋아서 집에 있는 거예요

에어서울
민트원정대 2기
~5.16



에어서울에서 민트원정대 2기를 모집한다. 6개월 동안 여행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에어서울 이벤트를 홍보하는 활동이야. 활동 기간 동안 취항지 탐방의 기회도 주어진다. 여행,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우수 활동자 1등에게는 에어서울 전 노선 1년 무제한 탑승권을 준다고 하니, 어서 지원 고우!

주최 에어서울 **접수 기간** ~ 5월 16일(목)
태그 #동남아(2등), 일본(3등), 무제한탑승권도 #제공

쥬스터스19
1기
~5.23



쥬씨에서 쥬스터스19 1기를 모집한다. 3개월 동안 콘텐츠를 제작하고 쥬씨 마케팅팀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활동이야. 쥬씨를 익스트림하게 바꿀 자신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해. 활동 시 활동비와 3만원권 쿠폰이 주어지고, 최우수 활동자는 365일 무료 쿠폰과 학교 또는 회사로 쥬씨 나눔 트럭을 보내준다고 하니, 어서 지원 고우!

주최 쥬씨 **접수 기간** ~ 5월 23일(목)
태그 #쥬씨, 입사지원서 #가산점부여

KITS 라이트업
서포터즈 4기
~6.9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KITS 라이트업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 3개월 동안 박람회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활동이야. 블로그를 운영하며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활동 시 팀 활동비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는 별도의 포상도 진행된다고 하니, 어서 지원 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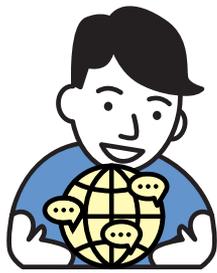
주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접수 기간** ~ 6월 9일(일)
태그 #블로그, 운영, 필수

수림문화예술
서포터즈 3기
~5.19



수림문화재단에서 수림문화예술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한다. 7개월 동안 문화 예술 행사를 홍보하고 참여하는 활동이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실무 경험을해보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해. 영상 및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는 우대한다. 활동 시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집도 제공한다니, 어서 지원 고우!

주최 수림문화재단 **접수 기간** ~ 5월 19일(일)
태그 #실무자특강, 혜택



해외 취업 하고 시뻐 사람?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 있다

#월드잡플러스 #두유노우손흥민?

- ✓ 만 34세 이하 청년
- ✓ 해외 취업 준비자
- ✓ 해외 인턴 희망자

모르면 나만 손해인 청년정책 04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글로벌한 삶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가장 먼저 클릭해봐야 하는 사이트가 바로 월드잡플러스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에는 해외 취업, 해외 연수, 해외 인턴, 해외 봉사, 해외 창업 등 해외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어. '한번 나가볼까?' 싶은 극초기 해외 취업 준비자부터 실제 취업을 목전에 둔 취준생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처라고.



Q1 해외 취업에 대해 몰라도 됨?

아직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월드잡플러스는 유용함. 해외 진출 프로세스부터 취업 경로, 국가별 기본 정보, 현재 부족 직종, 출입국 절차, 해외 취업 성공 시기 등 초심자를 위한 해외 취업 가이드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외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됨.

Q2 네이티브수준의 어학능력이 필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음. 만34세 이하의 미취업자라면, 6개월 이상 또는 600시간 이상의 장기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함 물론 3~6개월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있음. 1인당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일자리 찾기] 메뉴를 활용해볼 것.

Q3 해외 인턴 자격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모두 세 가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 4학기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글로벌현장학습(4~6개월, 1인당 400~750만원 지원)과 2학기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글로벌현장학습(4~6개월, 1인당 400~750만원 지원), 그리고 어학연수(4개월) + 인턴(8~12개월) + 여행(1개월) 형태의 WEST가 있으니, 각자에게 잘 맞는 인턴십에 지원하면 됨.

Q4 정착지원금도 준다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까지 준비되어 있음.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등 지원금 우대 국가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800만원, 선진국 분류 국가에 취업할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해 줌. 또한 취업 애로 청년층의 경우 국가 구분 없이 총 800만원을 지급해주시니, 초기 정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임.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검색해볼 것!



4.10 ~ 6.5

201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목적

-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함

경진내용

- 특허전략 수립(논문) 제출 기업이 제시한 문제의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을 수립
- 문제는 대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참가자격

- 국내 대학(원)생
 - ※ 국내대학의 국내국적을 가진 대학(원)생에 한함
- 팀(3명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가, 지도교수 1인(복수팀 지도 가능) 필요
 - ※ 복수신청 가능(1인당 최대3건 이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0일(수) ~ 6월 5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대회홈페이지(www.kipa.org/cpu)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PDF, JPG파일) 업로드
 - 온라인 답안/논문 제출 : 답안/논문 등록(HWP, MS-WORD 형식)
 -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 ※ 팀 참여 신청 등록 시, 팀원 각자의 개인인증을 통한 접수 필수

시상내역 ('19년 기준)

구분	학생	지도교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팀(1천만원)	1명(2백5십만원)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1팀(1천만원)	1명(2백5십만원)	
특허청장상	2팀(각1천만원)	2명(각2백5십만원)	
후원기관장상	우수상	문제당 1팀(3백만원)	-
	장려상	문제당 2팀(각1백만원)	-
최다응모대학상 (한국발명진흥회상)	1개 대학(2백만원)		
최다수상대학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상)	1개 대학(2백만원)		
총 상금	문제 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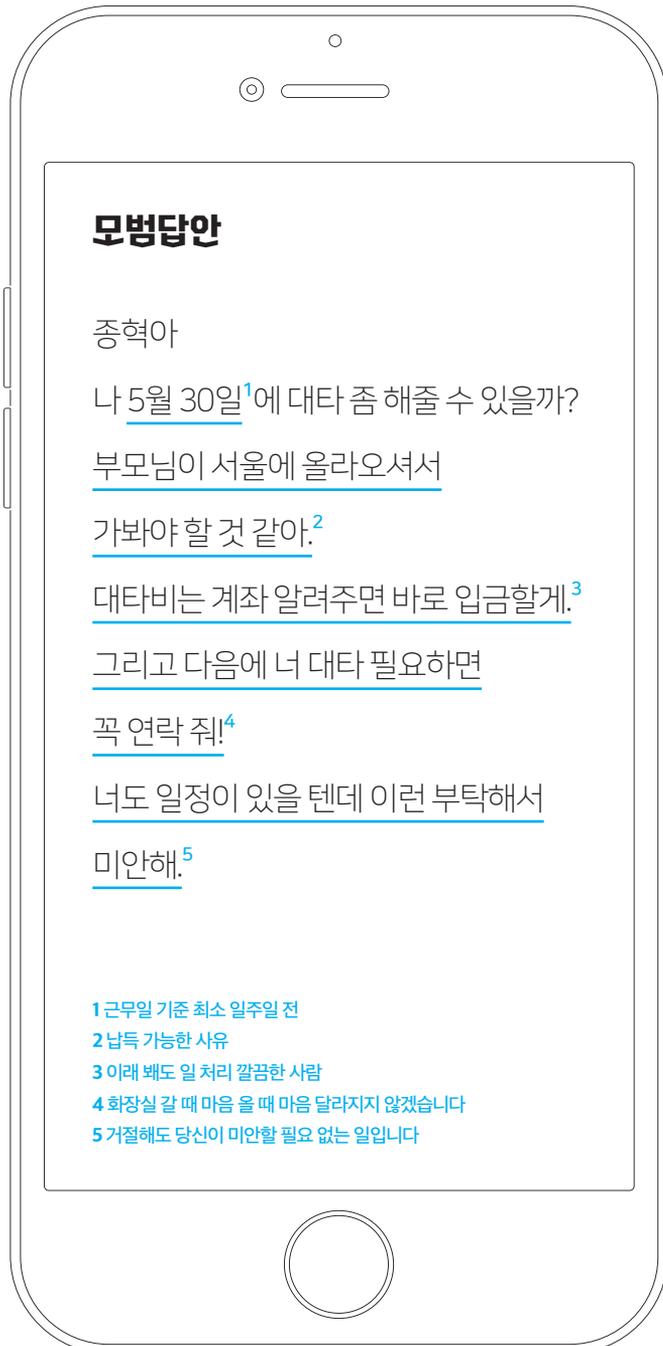
※ 후원기관장상은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상격 및 시상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 제공, 상세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 "취업지원 서비스" 메뉴 참조

주최 : 특허청 주관 : 한국공학한림원 KIPA



알바 대타 부탁 문자 대신 써 드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TIP 1

대타 부탁은 최소 일주일 전에

나만 일정이 있고 바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도 사정이 있음을 기억하자. 성인이려면 일하는 데 무리 없게 본인의 일정 정도는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일주일 전에 미리 부탁할 것. 당일에, 그것도 근무 몇 시간 전에 대타를 부탁하는 건 솔직히 예의가 아니다. 또 연휴, 주말 등 다들 쉬고 싶은 날에 부탁할 거면 인간적으로 커피라도 한 잔 사라.

조형우(26세, 편의점 알바 4년 차)

TIP 2

대타비 입금은 칼같이

내 경우 대타를 부탁할 때는 꼭 대타비를 미리 입금한다. 그래야 대신 일해주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대타비를 안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열 받더라. 괜히 서로 걸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다들 일 처리는 깔끔하게 했으면, 설마, 대타비 미리 받고 당일에 안 나가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정지우(24세)

TIP 3

월 3회 이상 대타를 부탁해야 한다면

그 알바는 그만둬라

친구랑 알바를 같이 했는데, 편해서 그랬는지 정말 밥 먹듯이 대타 부탁을 하더라. 감기 몸살, 팀플, 보일러 고장 등 이유도 다양했음. 그렇게 매번 대타를 구해야 할 정도로 다른 일이 많다면 알바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친구랑 알바를 같이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니 다들 편한 사이일수록 조심했으면, 결국 그 친구랑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김포도(24세, 가맹)

원망의 끝에서 마주한 비정규직 아버지의 시간

열여섯이 나는 자꾸만 친구 아빠들과 우리 아빠를 비교하곤 했다.
내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은 그가 원망스러웠다



나의 아빠는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았다. 아빠는 관련 업계에 20년 넘게 종사했지만 내세울 학벌도 없고, 이렇다 할 인맥 또한 없다는 이유로 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만큼 벌이가 턱없이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돈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지는 못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의 실직과 이직으로 요란한 나날을 보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늘 비슷한 다툼을 반복했다.

어느덧 열여섯이 된 나는 자꾸만 친구 아빠들과 우리 아빠를 비교하곤 했다. 내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은 그가 원망스러웠다. 왜 우리 아빠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지 못할까, 왜 우리 아빠는 전문직이 아닐까.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대로 고액 과외도 받아보고 싶고, 호텔 뷔페에서 근사한 외식도 해보고 싶은데. 그 시절 나의 가장 큰 콤플렉스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이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사소한 무언가로 아빠와 말다툼을 했을 때, 나는 아주 치명적인 실언을 한 적이 있다. 언성을 높여 나를 다그치는 아빠에 맞서 이렇게 소리쳤다. “아무리 그래도 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말을 내뱉은 순간 깨달았다.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건넬 수 있는 최악의 말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더운 여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지방에 있는 아빠의

직장에 간 적이 있었다. 아빠는 자신이 지내는 직원용 기숙사를 엄마와 나에게 소개해주겠다고 자랑했다. 그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로 우리 둘을 안내했다. 곰팡이가 핀 싱크대와 때 탄 냉장고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주방을 지나니 고시원 같은 작은 방들이 뿔뿔하게 즐지어 있었다. 아빠의 방은 105호. 조그만 구식 텔레비전과 낡은 1인용 침대, 작은 책상이 가구의 전부인 몇 평 남짓의 공간이 펼쳐졌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나와 건물의 어느 구석에서 펄펄 울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홀로 감당해왔을 아빠의 지난날이 그제야 눈에 보였다. 이때껏 아빠를 원망해왔던 내가 한 없이 부끄러워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아빠와 집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적으면 한 달에 한 번이다. 아빠와 주로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시간의 흔적을 더 절실하게 체감한다. 남부러울 것 없는 시력을 자랑했던 아빠는 언젠가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 이젠 새치 염색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졌다.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우리는 절대 지나간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얼마 전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의 눈물을 봤다. 평소 티는 내지 않았지만, 가뜰이나 청년이 몇 년 남지 않아 아빠는 늘 불안해하곤 했다. “내가 앞으로 우리 네 식구 먹여 살릴 능력도 없어지면...” 어린 아들 딸을 양손에 안고 뛰어다니던 건장한 슈퍼맨은 이제 없다. 조금씩 나약해지고 나이 들어가는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가 있을 뿐. 앞으로 나의 아버지는 흘러가는 시간만큼 경제력 또한 차차 잃어갈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는다.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온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더 많은 보수와 더 오랜 정년을 보장받는 어느 친구의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못된 상상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처럼 살지 않겠다고 건방지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몇 년이 또 지나, 아빠가 허름한 직원용 기숙사가 아닌 집으로 영영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밝은 미소로 아주 오래 그를 안아주고 싶다.

독자 여러분의 에세이를 기다립니다. magazine@univ.me로 원고지 10매 이내의 글을 보내주세요. 잡지에 글이 실린 분께는 원고료 10만원을 드립니다.



대학내일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대학내일 #내일의질문

숨어서 하는 취미,

나만의 길티 플래저는?

In my case...

1

후비적.코 파기
@k_s_kang

2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예쁜 옷 몰래 쳐다보면서
연구하기
@kimudaeng

3

수위 높은 영화 보면서
소주 마시기
@hahaen608

4

마라샹궈 3만5천원어치
혼자다 먹기
@yongko94

5

고양이 키우는 게임 하기
@_legilimency

6

휴대폰 밝기 최저로 낮추고
달빛천사 마지막 회 보기,,^^*
오늘도 등곳길에 몰래봤다
@szzang_a

7

마카롱 많이 사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가족들 몰래
한개씩 녹여 먹기
@ju_rang

8

알바할때 몰래 토마토
한 조각씩 빼 먹기
@sejngrv

9

쥬니버,야후꾸러기 등
추억의 플래시 게임하기!
@ssind19o12

10

웹소설 결제해서 읽기
@citrus_sugar

첫 직장 생활 대리 체험 가능한 콘텐츠 4

오 3편 우리 과가 이런 덴지 몰랐지. 취준생 되니 회사도 그런 걸까 싶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직장 생활, 이 콘텐츠들로 예습 가능!

크리에이티브 뽀뽀 엔터 회사가 궁금하다면

YOUTUBE <마법딸기소리>

'마법소'는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매니지먼트사 직원들의 일상을 다룬 이야기다. 이 요상한 회사 이름은 보통 줄여서 매스사라고 부르며 10CM, 옥상달빛 같은 인디 가수들이 소속돼 있다. 시무식, 출퇴근, 워크숍 같은 회사의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 안은 여느 회사와 광장히 다르다. 시무식에선 사장님도 함께 청소 담당 사다리타기를 하고, 출퇴근은 완전 유연근무제이며, 워크숍은 대학 동기 MT에 가깝다. 심지어 다 함께 타투를 하러 가거나 회사에서 타코를 만들어 먹는 '타코 데이'도 있다. 한국의 작은 픽사나 구글쯤 되려나. 사무실 위치마저 훙대대!
 안타까운 건 매스사는 유니콘 같은 존재라는 것. 졸업 후 내가 들어갈 회사의 사내 분위기와 자유도는 매스사의 20%도 안 될 거라는 걸 알아두면 좋다. 과한 협박이라고? 양현석이 자신의 인스타에 종종 올리는 직원들과의 카톡 내용이나, <청춘시대2>에서 눈물을 머금고 소속사 아이들 뒤처리를 하러 다녀야 했던 진명 선배를 떠올려보자. 현실은 매스사보다 후자에 훨씬 가깝다. 박지원

10년차 직장인 간접경험하기

BOOK 『퇴사 중독』

누가 "직장 생활은 좀 어때?"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 건 총 두 번의 퇴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다. 첫 직장에서는 회사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눈앞에 주어진 일만 하기 바빴다. 그래서 앞선 질문에 "이건 좋고, 저건 좀 별로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다고만 말하기 일쑤였다.
 그런 내가 비로소 '직장 다니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건, 두 번째 퇴사를 결심했을 시기에 구매했던 책 『퇴사 중독』을 읽고 나서다. 저자는 총 아홉 번의 퇴사를 통해 각 직장 내의 경험담을 풀어놓는데, 그게 너무 실감 나서 책을 덮을 때쯤엔 마치 내가 10년차 직장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만약 직장 생활이 일과 생활 두 파트로 나뉜다면, 이 책은 그냥 '일' 외에 직장에서 벌어지는 사사로운 일들을 모두 적어두었기 때문! 심지어 대표님과 고민 상담, 상사와의 대화까지 모두 담겼다. 취준생 동생을 두었다면 추천해줄 만한 책. 독립출판 서적이라 관련 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사는



VR보다 실감나는 하이퍼 리얼리즘 오피스물

WEBTOON <가우스 전자>

사회 초년생 시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을 꼽으라면 단연 “회사 다니는 거 어때? 직장인 되니 좋아?”이다. 지금이야 “카드값 덕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라 받며 받아치지만, 뽀시래기 직장인 시절에는 이상하게도 할 말이 없어 “뭐, 그렇지 뭐...”라고 얼버무렸다. 직장인이 된 것은 좋았다. 특히 사고픈 것을 사고, 하고픈 것을 할 수 있게 됐을 때의 쾌감이란!

그런데 그만큼 싫기도 했다. ‘정말, 이게 ‘일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반문과 회의가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가우스 전자> 댓글에서 만났다. 2011년부터 콕백수 작가가 네이버에 연재해온 이 작품은 다국적 문어발 기업 가우스 전자에서 벌어지는 웃픈 현실 직장인 이야기다. 멋모르던 시절에는 ‘재미’로만 봤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 한 회 한 회 나와 내 주변 직장인들 이야기 같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직장 생활이 궁금하다? <가우스 전자>를 보시라. 아, 그리고 이 웹툰은 댓글이 ‘짤’이다. 꼭 함께 보시길.(짹) 유희수



작은 회사에 대한 로망 깨드립니다

YOUTUBE <이과장>

20대 초반엔 작은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연봉? 복지? 네임 밸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일하는 모습. 번쩍번쩍 빌딩보다는 그쪽이 더 행복해 가까워 보였다. 대기업에 가면 톱니바퀴가 된다는데, 작은 회사라면 톱니바퀴행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엉터리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나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친구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다녀보니 어떠냐고? 물론 나는 매우 만족한다.(보고 계시죠? 대표님?) 하지만 작은 회사에 대한 막연한 로망따위 더는 없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이과장’을 검색해보자. 6년차 과장이 중소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털어놓는다. 회사 몰래 하던 유튜브인데 점점 구독자가 많아지더니 최근에 발각돼서 퇴사하셨다고... 본인이 말하면서도 어이없어서 피식피식 웃는데,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격공해서 낄낄대다가 눈물 날 수 있음 주의. 다 보고 나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1년 고생하다가 퇴사한 기분이 든다. 작은 회사에 막연한 로망이 있다면 구독 추천. 김수현



해오 말아요 상담소

남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음.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세상 사랑꾼이 되어 "애가 내 애인이다!" 막 자랑하고 싶음. 그래서 남들 다 한다는 렁스타그램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헤어지면 어쩌냐" "오늘거리게 뭐 하는 짓이냐"라며 친구들이 다 뜯어말림. 나 렁스타그램 할까? 말까?

17학년, 렁스타그램 욕구 폭발한 익명의 대학생

렁스타그램 꼭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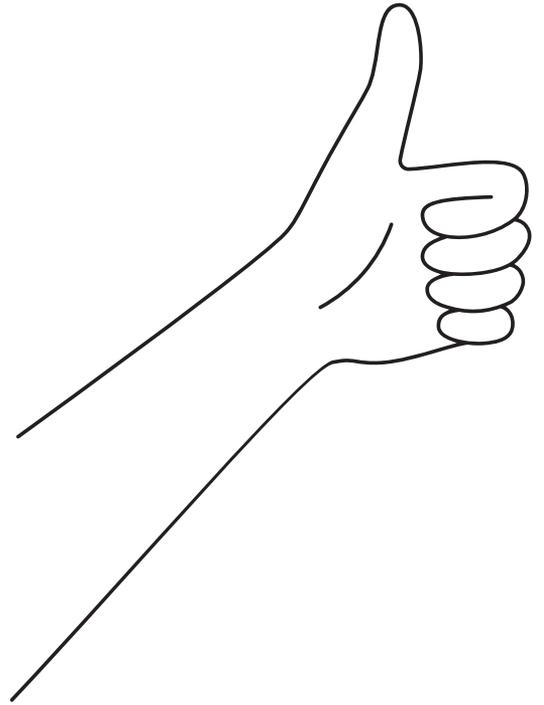
연애의 알콩달콩 지수도 동반 상승함♡

솔직히 연애하면 동네방네 "내 남(여)친 좀 보세요~"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님? 아니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를 나만 보면 반칙이지!(뽀뽀) 그래서 나는 렁스타그램 열심히 함! 얼마 전에도 남친 이랑 만난 지 1주년 돼서 부산 다녀왔는데, 여행 내내 렁스타그램 폭풍 업데이트 함ㅋ 인스타에 올리자마자 친구들도 '예쁘다' '부럽다'라며 축하해줬고.

사실 연애 중이면서도 렁스타그램 하기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은 '헤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티 내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인 거 아님? 그런데 난 실컷 사랑하고 표현하고 자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왜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못 누리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또 헤어지면 어떡? 그냥 지우면 그만인데; 요새 렁스타그램을 워낙 많이 하니까 사진 지우면 다들 알아서 '헤어졌다' 보다 하고 쓰쿨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임. 렁스타그램 하면 연애의 알콩달콩 지수도 올라감...! 데이트하다가 가끔씩 같이 렁스타그램 쪽 훑어보면 '아! 100일 땀 여기 갔었지?' '이날 날씨 진짜 좋았는데' 하면서 분위기 촉촉(?)해짐ㅋ 가끔 싸웠을 때도 렁스타그램 사진 보면 애정도 회복이 빠름. 사진 보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미웠던 마음도 썩 내려가버림.

단, 렁스타그램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음. 둘만 봐야 할 사진인지, 인친들과 함께 봐도 좋을 사진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뽀뽀 같은 진한(?) 스킨십 사진을 올리면 인친들이 언팔할 확률 높아짐^^ 이런 사진이 아니라면, 연애하는 동안 티 팍팍 내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렁스타그램 열심히 하길! 사랑하는 순간은 아름다운 거니까...☆

19학년 안다현, 캠퍼스 사랑꾼



럽스타그램 하지 마!

사랑은 사진이 아니라 눈에 담는 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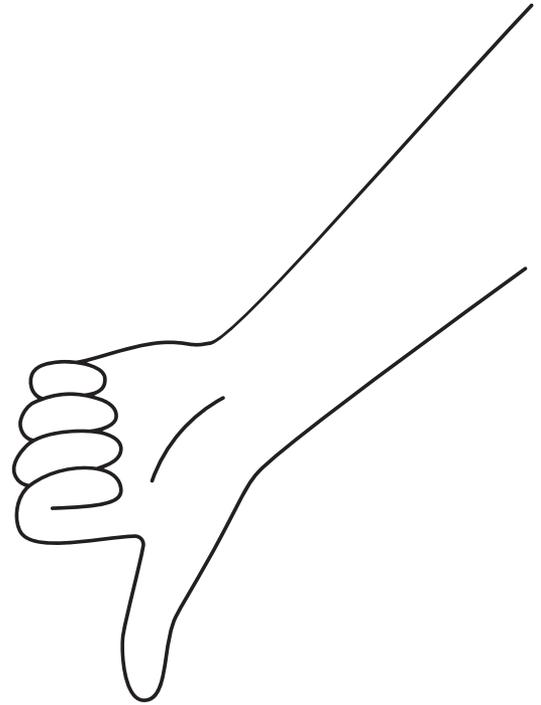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한 장 찍을 사진 열 장, 스무 장 찍게 되지 않음?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찍어도 예쁜 구도에서 깔끔하게 세팅해서 찍겠다며 음식 식는 줄 모르고 사진 찍어본 적 많을 거임. 럽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SNS에 올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쁜 배경을 찾아 사진을 찍다 보면 한 장으로 충분한 걸 열 장, 스무 장 찍게 됨. 그 시간에 애인을 내 눈으로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낫지 않음?

게다가 인친이 한둘도 아니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내 사생활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학생인 지금 당장은 별일 없겠지만, 나중에 200% 후회할 거라 확신함. 취업한 선배 얘기 들어보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회사 동료가 럽스타그램 보고 와서 "OO씨 어제 애인이랑 어디 놀러 갔더라?"하며 오지랖을 있는 대로 부린다고 함. 소오름 아님?

진짜 무서운 건, 이미 올린 럽스타그램 사진은 나중에 지우고 싶어도 지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SNS 내에선 사진과 글을 삭제했다고 해도 나중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뽕(!) 하고 검색될 때가 있음. 내 과거 사진이 구천을 떠돌듯(?)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함. 손가락이 자꾸만 럽스타그램 업로드로 향한다면, 부디 내 말을 기억하며 한 번만 더 참길 바람.

럽스타그램이 아니면 어떻게 연애를 기록하냐고? 나랑 내 애인은 요즘 카톡에 있는 '톡 게시판' 활용함. 여기에 사진을 저장하고 글을 적어 두면 만료 기간 없이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서 좋음. 단둘이 공유하는 럽스타그램이라고나 할까. 연애할 때 남들에게 모든 걸 공개하기보다 둘만 아는 뭔가가 있을 때 더 짜릿하고 새롭지 않음? 럽스타그램 대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콩나콩나 예쁜 연애하길 응원함!

16학년 한연지, 콩나콩나 전도사



+TIP 1

애인 동의는 기본!

아무리 연인 사이라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럽스타그램을 올리는 건 늘!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걸 SNS에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럽스타그램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임.

+TIP 2

수위 조절(?)은 필수!

한번 업로드된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 한번 올린 럽스타그램은 삭제할 수...는 있지만 그 파장이 어마어마함.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애정 행각이 투머치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한 후 '게시' 버튼을 누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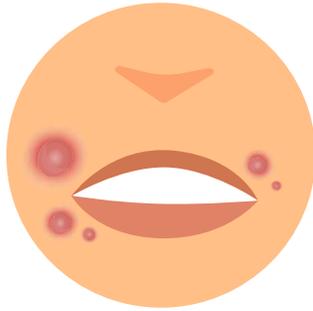
+TIP 3

럽스타그램 전용 계정 강추!

럽스타그램... 하고는 싶은데, 남들 시선이 부담이라면 럽스타그램용 계정을 따로 파는 것도 좋음. 새로운 계정에 애인과의 추억을 쌓고, 일부 친한 친구들하고만 인친을 맺으면 남의 눈치 안 보고 부담 없이 럽스타그램 성공!

간호학과가 알려주는 건강에 대한 속설, 오해와 진실!

아래의 속설이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그 진실은 본문 속에^^



01

입가 트러블= 자궁 건강과 직결?

입가에 트러블이 생기면 “너 자궁 건강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들 하죠? 근데 생각보다 가벼운 피부 염증일 수 있어요. 물론 생리 때만 유독 심하거나, 그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자궁 건강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건강 문제에 무조건적인 원인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세균’에 의한 트러블인 경우가 꽤 많다는 것! 혹시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입 주위를 자주 만지지는 않았는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건 아닌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은 건 아닌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간호학과 교수님들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손 씻기’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혜강 성신여대 간호학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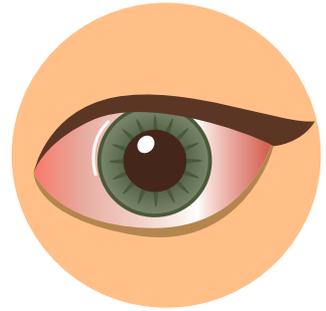


02

커피 다량 섭취= 카페인 쇼크?

하루에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시험 기간에!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밤에 잠 안 온다, 카페인 쇼크 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경우! 그보다 위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을 주의해야 해요. 사실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배우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이긴 하지만 ☹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염산’과 ‘펩신’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데, 애네가 위장관 점막을 공격해서 상처를 내요. 그래서 위궤양이 진행되면? 천공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과 동기들은 모두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혜교 성신여대 간호학 18



03

충혈= 각막 상처?

콘택트렌즈 자주 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 충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끔 따갑기도 하고요. 언젠가 친구가 “나 눈에서 자꾸 눈물 나ㅠㅠ 각막에 상처 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냥 건조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친구야 미안).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인공 눈물 자주 넣어주시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통증이 정말 심하거나, 부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면 ‘각막 궤양’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충혈과 더불어 따가운 느낌이 들거나, 눈물이 많아졌다던 상처 나기 직전이라는 소리! 건조하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익명 고려대 간호학 15



04

햇빛 보기= 비타민 D 충전?

신기하게도 해가 떠있는 시간에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햇빛이라도 봐야 비타민 D를 충전하는 거데'라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조? 이 말은 진짜 맞는 말, 덩동덩이예요. 근데, 더러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비타민이 더 충전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건 땡! 오히려 햇빛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비타민 D의 효능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15~20분 정도가 적당해요. 점심 먹고 산책하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약이나 수액으로 채우는 게 직방이기는 하고요^^
신혜란 부산여대 간호학 18



05

어지럼증= 저혈압?

요즘 동기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장난 중 하나가 있는데요. 앉았다 일어났을 때 '핑'도는 현상 생기잖아요. 그럴 때 "너 저혈압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걸 사실 조금 오버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세가 변하면서 혈류가 갑자기 바뀌어 머리가 도는 듯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혈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한두 번 어지럼증 느꼈다고 저혈압 아니니까 자제해~"라고 얘기해주세요. 너무 단호박인가요? 하하. 대신, 빈혈 수치가 있거나 그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봐야 해요. 무튼 결론은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저혈압은 아니라는 사실~
익명 강동대 간호학 17



06

눈 밑 떨림= 마그네슘 부족?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눈을 건드리는 것 같고, 심장이 눈 밑으로 옮겨간 것처럼 빠르게 뒹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격한 친구들은 어김없이 "너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무조건 약 챙겨 먹어라"라고 할 테고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물론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눈 밑이 떨리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보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육 이완을 돕는 성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떨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눈 밑이 자주 떨린다면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우선이에요! 마그네슘 걱정은 그 뒤에해도 늦지 않아요.
익명 삼육대 간호학 17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univ.me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다양한 구도에서 촬영한
일상 사진 및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 ①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화보 촬영 진행
- ② 짧은 인터뷰

Find Cover Model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다음 중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 연봉
- 좋아하는 일
- 사내 분위기
- 워라밸

좋아하는 일이면서 돈도 많이 주고 업무 강도도 적당한 곳에 취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 그런 신의 직장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취직한 선배들의 사례를 참고해 나만의 직장 고르는 기준을 정리해보자.

1. 일과 삶의 균형을 선택한 경우



INTERVIEWEE
(35세, 공무원)

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무원에 남다른 꿈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했어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나이는 차고, 취직은 해야 하니까

소문처럼 정말 9 to 6,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나요?

업무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9 to 6를 지켜가며 일하는 공무원은 정말 소수예요. 저만 해도 요즘엔 아침 7시까지 출근합니다. 참고로 예산을 짜고, 기업을 유치하는 등 큰일(?)을 하는 부서 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성과에 대한 부담은 사기업보다는 덜해요. 눈치 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는 편이라 만족스러워요.

9 to 6만을 바라보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슬퍼할 소식이네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공무원은 대략 2년 단위로 근무지를 이동하는데 요. 장점은 안 맞는 상사나 동료로 만나도 덜 힘들

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때가 되면 헤어지니까요. 단점은 연봉이죠. 사기업에 비해 초봉이 낮고 정말 조금씩 올라요. '어섯 시 땀 하면 퇴근할 수 있는 철밥통'을 기대하고 온다면 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중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버티는 거죠.

자아실현에 미련이 남지는 않으셨나요?

애초에 대단한 자아실현을 바라고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이 일이 적성에 잘 맞는 편입니다. 취업 전엔 몰랐는데 소소한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타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는 할머니가 등본 떼는 걸 도와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반면 누군가는 제 일을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나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꽤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조연에 가까우니까요. 또 하고 싶은 업무를 골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도로에 흘린 고추를 줍는 다거나, 비뚤어진 교통 표지판을 망치로 두들겨서 고친다거나 생활 폐기물을 치우는 등 각종 잡무를 맡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겠죠.

취준생을 위한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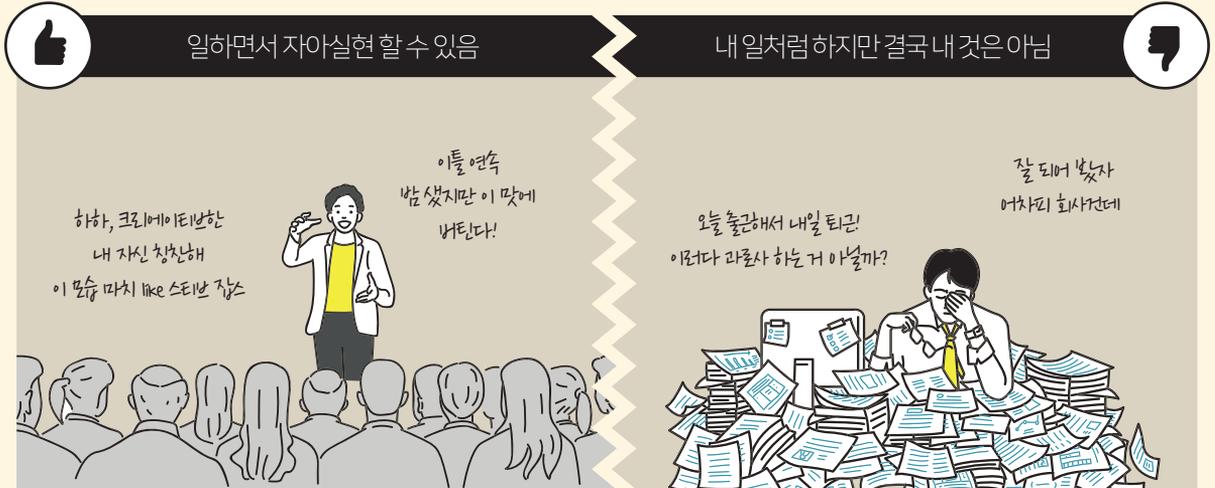
1. 나는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혹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아도 상관없다)

YES NO
2.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안정적인 미래가 더 중요하다

YES NO
3. 9 to 6가 지켜지지 않은 부서에 발령 받아도 2년은 참을 수 있다

YES NO

2.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경우



—
INTERVIEWEE
 Y(30세, 디자이너)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기 위해 다섯 번이나 이직을 했다고 들었어요.

휴가 가는 낙으로 사는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업무 시간에 최저가 항공권 검색하면서 버티고, 해외여행 갈 날만 기다리며 참고 일하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휴가는 기껏해야 일 년에 몇 번이고 나머지는 다 일하는 시간인데. 연봉이 적어서 휴가 때 해외여행 가는 게 어렵더라도 오늘 하루가 재밌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말게 될 업무가 마음에 들어서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만둔 이유는 뭔가요?

회사마다 다른데요. 첫 직장은 본업보다 업무 외적인 일을 더 많이 시켜서 퇴사했고, 두 번째 직장은 대표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너무 심하게 간섭해서 그만뒀어요. 세 번째는 업무 강도가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매일 밤새워 일해야 돼서 그만뒀고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의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직장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시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프리랜서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 외에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인맥 관리도 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돈 받는 것도 내가 다 챙겨야 하고. 그리고 저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뭔가요?

연봉, 복지, 회사의 네임 밸류, 워라밸? 그러고 보니 적성 말고는 모든 걸 포기했네요... 저는 그 일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지, 회사의 분위기가 자유로운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일 크게 생각해요. 대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도 수직적인 분위기가 싫어서고요.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없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친동생이 취업을 준비한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은?

직장을 정할 때 '난 여기에 빠를 문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입사하기 전엔 절대로 알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아서. 일단 들어가보고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
취준생을 위한 CHECK POINT

1. 하루 1/3 이상을 보내는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자신이 없다
 YES NO
2. 지원할 회사에서 주는 월급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냐
 YES NO
3.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야근이 당연한 분위기의 직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YES NO

3. 연봉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경우



INTERVIEWEE

K(35세, 대기업 기획팀 대리)

직장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일하는 재미도 있고 연봉도 많이 주는 회사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고요. 차선책으로 연봉만 많이 주는 IT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하고 싶던 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연봉, 복지, 회사의 네임 밸류 면에서 기준 미달은 없는 곳이라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정말로 연봉이 곧 행복인가요?

그 정도로 많이 벌진 못하는데요.(웃음) 가장 좋은 건 선택지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고 싶거나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을 때, 돈 때문에 포기하는 기회가 훨씬 줄어들었죠. 기본적인 돈 걱정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면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저는 톱니바퀴 1 역할에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자아실현도 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도 행복하면 좋겠죠. 하

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고 필수 조건은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면 직장도 나도 상처를 받게 돼요. 월급 주니까 책임감 있게 일하는 정도가 딱 좋다고 봅니다.

지금 직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정년이 짧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써먹을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기술을 배운다든가. 앞으로 15년쯤은 더 일하겠지만, 그다음에 뭔가를 처음부터 시작할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주변에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이런 회사는 못 다니겠다' 싶은 곳을 본 적 있나요?

친구들을 보면 연봉이 높아도 매일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곳은 오래 못 다니더라고요. 또 너무 자주 모욕적인 상황을 견뎌야 하는 곳이거나, 선택한 업계가 사양 산업이라서 직원 수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할 일은 늘어나고, 월급은 안 오르고, 미래도 어둡다면 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지금 예로 든 친구들은 실제로 모두 이직했어요.

친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요?

알바 구할 때 시급 따져보는 것처럼 직장을 구할 때도 일하는 시간 대비 연봉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다면 금방 한계를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취준생을 위한 CHECK POINT

1. 만족할 만한 연봉이라면 일과 관련된 나머지 조건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YES NO

2. 일하는 시간 대비 연봉을 계산해보니 적절한 수준인가?

YES NO

3.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못 다니겠다 싶은 정도의 단점이 없었는가?

YES NO

4. 누구와 함께 일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경우



INTERVIEWEE

B(32세, 홍보대행사 매니저)

직장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대학생 때 인턴으로 일했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인데요. 당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더 지원해볼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이루고 싶은 꿈도 없었고 무엇보다 입사 후 같이 일하게 될 선배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 한 지 7년째이신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실감해요. 저는 말은 일의 종류나 성격보다는, 함께 일하는 과정이 얼마나 즐거운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안 맞는 사람과 일할 때 의욕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팀워크를 발휘해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함께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좋아요. 반대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싫다면 아무리 큰 성과를 내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 고객의 연봉을 제시하며 이직을 제안한다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 회사보다 규모도 크고 복지도 좋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곳이었는데 거절했어요. 친구들을 보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퇴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일해보기 전엔 합을 맞춰 볼 수가 없으니까. 합이 잘 맞는 지금의 직장에 남는 쪽을 택했어요.

지금 직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내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다들 친하게 지내다 보니 공과 사의 경계가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업무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사적인 감정이 얽혀서 불편해지더라고요. 일할 때는 상호 간에 존댓말을 쓰고 성과를 철저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가고 있어요.

친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입사 후에 가능한 빨리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상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 신입 사원이 다니기엔 좋은 회사지만 연차가 쌓였을 때 버티기 어려운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의 5년 후를 그려 봤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계획을 잘 세워가며 일해야 해요. 커리어는 스스로 챙겨야 하거든요.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어요.



취준생을 위한 CHECK POINT

1. 일의 종류나 성격보다 함께 일하는 과정이 즐거우지가 더 중요하냐?
 YES NO
2.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과 사적인 호감이 아니라 업무 스타일 면에서 잘 맞으냐?
 YES NO
3. 지원할 회사(혹은 팀 내)에 참고할 만한 롤 모델이 있냐?
 YES NO

5. 2~3년 후 이직을 노리고 경력이 될 직장을 택한 경우



—
INTERVIEWEE
 J(26세, 패션 MD)

첫 직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나요?

‘다 경력직만 찾으면 나 같은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쌓냐’는 말이 있잖아요. 패션 MD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인지도 있는 브랜드 패션 MD가 되려면 직무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첫 회사는 작지만 업계에서 인정받는 곳이라 이직이 잘 되기로 유명했거든요.

업계에선 인정받는 곳이지만 일하기엔 나쁜 환경이었군요.

일단 직원 수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해야 했어요. 상사들도 일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혼자서 모든 걸 배워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 야근하고, 휴일도 못 챙기고 그 와중에 복지도 엉망이었어요. 야근하며 먹는 저녁밥도 사비로, 차 끊어서 타는 택시도 사비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약조건 속에서 버티며 일한 것이 실제로 이직에도움이 됐나요?

네, 그건 확실해요. 여러 회사의 면접을 봤는데 다들 OO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높게 평가해주셨어요. 타이틀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운 게 많긴 해요. 신입사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맡겨지다 보니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다니는 곳은 연봉, 복지, 업무 강도 모두 균형이 잘 맞는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첫 직장에 다닐 때가 더 재미있긴 했어요. 현 직장은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10년을 더 일한다면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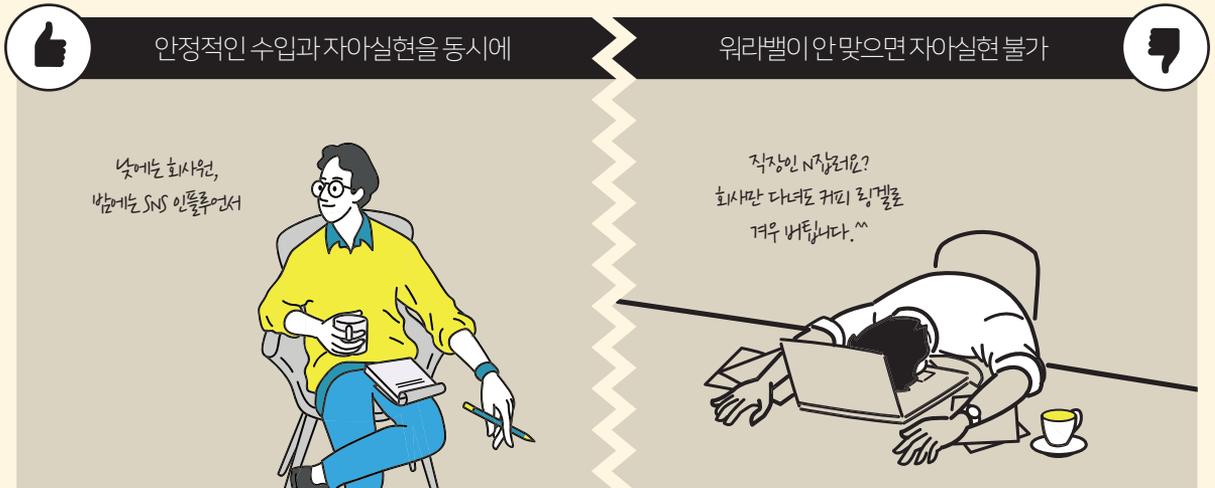
친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로망으로 품은 직업 혹은 회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일단 도전해볼 것. 선배들이 거긴 힘드니 가지 말라고 아무리 조언해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던 다른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미련이 남고요. 몇 달 만에 그만두더라도 일단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 경험을 다음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
취준생을 위한 CHECK POINT

1. 업계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회사, 직무인가?
 YES NO
2.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이직에 성공할 사례가 있는가?
 YES NO
3. 이직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업무 강도인가?
 YES NO

6. 일하는 자아와 퇴근 후 자아를 분리한 경우



—
INTERVIEWEE
 H(32세, 중소기업 마케터)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퇴근 후에는 SNS 관리와 헬스를 하고 주말에는 마라톤에 참여하거나 자기 계발에 투자해요. 요즘은 요리, 타로카드, 경제 공부 등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SNS 팔로워도 많고 원래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쪽에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심사와는 무관한 분야의 직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꼭 직장에서 자아실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서 목표를 이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아실현에 투자하려면 우선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퇴근 후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야 하나요?

업무 강도죠. 제가 아무리 이런 가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매주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라면 자아

실현을 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첫 직장이 딱 그랬어요. 주 3회 회식을 하는데 집에 오면 새벽 2시고, 월 평균 3회 이상 주말 근무가 있고 나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거의 연봉만큼 보너스를 주는 곳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삶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두 번째 직장은 퇴근 후 자아실현을 하기에 무리 없는 환경인가요?

실패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오래 고민하고 고른 곳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요. 아무리 일하는 자아와 퇴근 후 자아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 하겠는 업무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영업이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직군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현재 직장은 가끔 주말 근무도 하고 야근도 있지만, 틈틈이 내 시간을 갖기에 무리 없는 환경이에요. 복지나 연봉 부분에선 첫 직장보다 뒤쳐지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서 괜찮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취준생은 마음이 조금하잖아요. 저도 당장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취업하니 결국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직장을 고를 때 남들 기준을 따르지 말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충분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내 삶이니까요.

☑
취준생을 위한 CHECK POINT

1. 퇴근 후 자아실현을 할 정도의 열정이 나에게 있나?
 YES NO
2. 원하는 만큼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의 회사인가?
 YES NO
3.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해당 업무를 하며 보낼 수 있나?
 YES NO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당신은 '40'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연봉, 자아실현, 사내 분위기, 업무 강도'를 조합하여 최적의 직장을 만들어 보세요!

연봉

			
5	10	15	20

추후 협의라 쓰고 협의 불가한
최저가라고 읽음
(연봉 2,000 이하)

업계 평균이라고 하지만
알바 하는 것보다 조금 나음
(연봉 2,000~3,000)

대기업 대졸 초봉
(연봉 3,600)

업계 톱클래스
(연봉 5,600 이상)

자아실현

			
5	5	10	15

기업의 부속품
언제든 대체 가능

잡무 담당, 너무 지루해서
사는 의미를 잃음

존나 힘들지만
때때로 뿌듯함

덕업일치

사내 분위기

			
5	5	10	15

가족 같은 분위기
매 번 3차까지 이어지는 잦은 회식

까라면 가는 조선시대st 관료제
수직적인 분위기

자유로운 의견 교환 가능한
수평적인 문화

유연근무 가능,
사생활 완벽 보호

업무 강도

			
5	10	15	20

일=삶, 주말 출근, 철야
한 달에 4회 이상

저녁 없는 삶.
매일 9시까지 야근

주 3회 정시 퇴근

위라벨 보장,
자유로운 휴가 사용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요!

대학내일은 매주 월요일 전국 캠퍼스에 배포되는 주간지입니다.



facebook

56만 독자와 함께 보는 꿀잼 콘텐츠
@UNIVtomorrow



instagram

#소통해요 #선팔환영
@univ20



youtube

대학생 폭풍 공감
영상들이 가득!



univ20.com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주변인과 손절하고 정신 건강 되찾은 썬

묵은 때처럼 묵은 대인관계도 정리가 필요함.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손절 대상 1

자존감 브레이커인 절친

김우정(가명) 고려대 16



계기

내 (구)절친은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유독 말을 막 했음. 거의 뭐 안부 인사 대신 외모 지적을 하는 수준?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자존감 바닥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음. 머리 한 대 세계 맞은 느낌; 그 전까진 가장 오래된 친구기도 하고 겹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 그냥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함. 용기 내서 그동안 상처 받은 것에 대해 쏟아냈는데 장문의 사과 아닌 사과 특이함.

손절 후

그 사과 특 이후로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멀어짐. 내가 애랑 손절하고 느낀 건 꼭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마냥 건강하진 않다는 것임. 솔직히 주위 친구들 때문에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음. 다른 친구들이랑은 서로 아직 잘 지냄! 그러니 나를 갇아먹는 친구와의 인연은 억지로 이어나갈 필요는 없는 듯.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다 보면 악감정 없이 손절 가능함.

손절 대상 2

가스라이팅하는 남친

조함식(가명) 서울시립대 17



계기

내 (구)남친은 교묘하게 자기 잘못도 내 탓으로 돌리는 애였음. 하루는 갑자기 귀걸이를 선물해주는 것임. 중요한 건 난 귀를 안 뚫었고 귀걸이를 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했었음. 조금 당황해서 리액션을 잘 못 했는데, 왜 안 기뻐하냐고 빈정댐. 심지어 너무 뭐라고 하니깐 어느 순간 내가 사과하고 있었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더는 못 참고 손절 통보함. 다시 생각해도 타노스보다 더 별로였음.

손절 후

마음먹고 끊어 내니까 그제야 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광명 찾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계속 끌려 다녔을까 싶었음... 분명 나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함. 어느 순간 내 잘못도 아닌데 자꾸 죄책감 느껴지고 사과만 하고 있으면 혹시 가스라이팅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바람. 그리고 이런 인연과의 손절은 뭐다? 빠르게 할수록 좋다! 알면서도 못 뇌주는 건 '예측 가능한 불행'임.

손절 대상 3

나를 ATM으로 보는 동기

이규빈(가명) 경희대 18



계기

새내기 시절. 나랑 친했던 동기가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서 내 돈 꽤 자주 빌려줌. 그땐 세상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김. 근데 애 SNS 보니까 맨날 페스티벌 가며 돈 써대는 것 같은 거임. 몇만원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동기에 무너질까봐 돈을 값이라고 돌려서 얘기함. 근데 애 태도가 가관인 거임. 그깟 5만원 가지고 그러나면서 장난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때 손절 결심함.

손절 후

내가 손절하니깐 나 같은 피해자가 하나들 나옴. 역시는 역시였음. 결국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고 과에서 꽤 유명해짐(돈도 다 돌려받음). 이 사건으로 인해 동기에 무너질까봐 걱정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됨. 동기 사이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안 되겠다 싶으면 끊어내는 게 맞음. 어차피 나중에는 끼리끼리 다님. 억울한 건 속에 쌓아두지 말고 말하는 게 맞음!

손절 대상 4

성격 안 맞는 친오빠

최희수(가명) 고려대 16



계기

난 친오빠랑 성격이 진짜 안 맞음. 호적에만 같이 올라와 있는 정도의 친밀도랄까^^ 오빠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원인이었음. 폭풍의 사춘기를 거치면서 저세상 다혈질이 됐기 때문. 그냥 눈만 마주치면 싸웠다고 보면 됨. 아마 옆집에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듯; 그러다 보니 점차 가족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오빠랑 거리 두고 말 안 섞기 시작함. 지금까지 생각만 확인하는 중.

손절 후

가장 큰 변화는 집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임. Peace!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모두의 정신 건강이 좋아졌음. 그래서 문득 피 섞인 가족이라고 모두 잘 지낼 수는 없겠다고 느낌. 어찌 보면 가족도 대인관계의 일종이고, 이런 사이도 있는 거임. 그러니 자책할 필요도 없음! 웃긴 건 마주치지 않으니까 미운 감정도 점차 사라지더라는 것. 앞으로도 이대로만 지냈으면 좋겠음.

평타 치는 PPT 가이드라인

이것만 안해도 PPT 반 이상은 간다, 에 내 외장하드 건다.

01

Font

기본으로 깔려있는 폰트는 사용하지 말자

귀찮아도 나눔스퀘어 / 본고딕 / KoPub돋움체와 같은 세련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자. 텍스트 굵기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나눔스퀘어 나눔스퀘어
본고딕 본고딕
KP_돋움체 KP_돋움체



맑은고딕 맑은고딕
굴림체 굴림체
돋움체 돋움체

02

Image

저화질 이미지는 사용하지 말자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을 때 검색창 하단의 '도구 > 큰 사이즈' 설정을 절대 잊지 말자. 확대했을 때 깎두기가 보이는 이미지는 믿고 거르면 된다.



03

Txt.

밋밋하게 텍스트만 넣지 말자

텍스트는 최대한 줄이고 그림, 픽토그램, 그래프 이미지를 넣어보자. 텍스트만 있는 슬라이드보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대신 관련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갑분싸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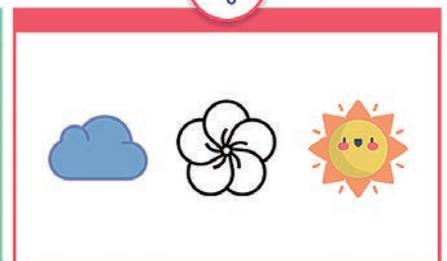


04

Pictogram

픽토그램 이미지를 일관성 없게 사용하지 말자

컬러면 컬러, 흑백이면 흑백, 테두리가 있으면 있는 것끼리만 사용하자. 일관된 디자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PPT에 통일감을 부여할 수 있다. (사이트 추천 : www.flatic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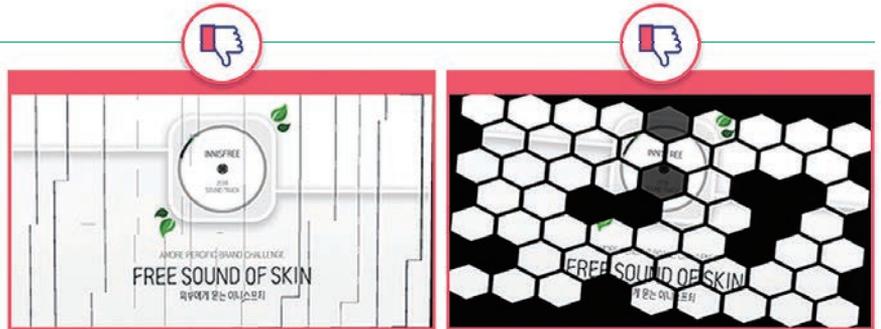


05

Animation Effect

**애니메이션 효과는
제발 제발 넣지 말자**

PPT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애니메이션은 ... **그만** **알아보자**.
이건 조원들에게 빅 엿을 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다.



06

Point Txt Color

**포인트 텍스트 색은
2가지 이상 사용하지 말자**

기본 텍스트 검정색과 포인트 텍스트 색
2가지 만으로도 충분하다. 변화를 주고 싶다면
텍스트의 굵기 / 명도 조절 / 하이라이트
효과를 사용하자. (Ex. 명도: 검정색 > 진한
회색 > 연한 회색 > 흰색)



07

Ctrl C + Ctrl V

**자료와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자**

자료와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하면 지저분해
보인다.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PPT에
어울리게 **다시 정리하고, 가공하자**.
(PPT 퀄리티 = 공들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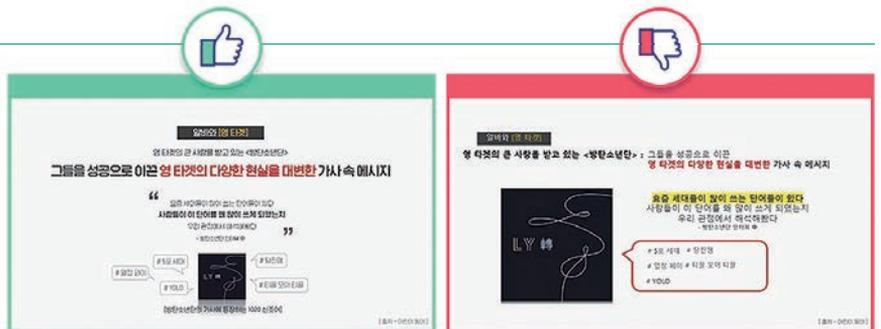


08

Layout

**무질서하게
배치하지 말자**

상하좌우 정렬과 대칭은 기본 기본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리고 **발표 흐름에 맞춰** PPT
내용들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배치해보자.
사방팔방 중구난방으로 내용을 던져두면 정신
사나운 PPT가 된다.



교생의 하루는 어떨까요?

착하고 귀여운 애들 때문에 임고 의지 급상승...?!



7:30 출근



1교시는 8시 10분, 아침 조례는 7시 50분에 시작한다. 보통 7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한다. 이른 시간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지만, 등굣길에 학생들을 마주치면 힘이 난다.

7:50 조례



학급 담당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들어간다. 조례 참관한 후 가끔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있다. 주제는 주로 대학 생활이나 공부법, 직접 수업을 진행해보기 전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

7:40 교육실습 일지 작성



교무실에 도착하면, 명찰을 착용하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중요한 실습 일지 작성! 몇 교시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두면 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서 좋다.

18:15 퇴근



종례가 끝나고 학생들이 저녁을 먹으러 갈 때 퇴근한다. 퇴근 전, 하루 동안 배우고 느낀 점을 일지에 써서 담당 선생님에게 검인 받는다. 피드백 받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18:00 종례



종례를 참관한다. 기금 담당 선생님의 지도하에 직접 종례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가장 통신문을 나눠 주거나 학교 일정을 전달하고, 아픈 학생은 없는지 체크한다.

16:10~18:00 행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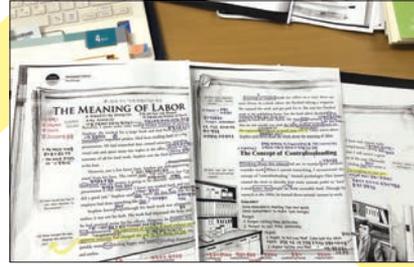
교생은 거의 모든 일과를 함께하기 때문에, 강당에서 진행되는 안전 교육 행사에도 참여했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하고, 소란스럽지 않게 질서 지도를 하기도 한다.

8:10~9:00 1교시 수업 참관



해당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허락하에 수업에 참관할 수 있다. 보통 내 담당 학년, 담당 과목을 참관하지만, 타 학년, 타 과목 참관도 종종 가능하다. 참관록도 작성하며 이후에 활용해보고 싶은 교수법이나 다양한 과목들의 성격에 대해 배우고 분석할 수 있다.

9:10~12:00 2~3교시 수업 준비



곧 있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무실에서 꼼꼼히 수업을 준비한다.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과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체크한다. 교과서와 참고서 외 다양한 서적, PPT 자료, 학습 활동지, 수업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14:10~15:00 6교시 수업 진행



충분한 수업 참관 후에 직접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막상 앞에서 직접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50분이 짧게 느껴졌다. (그리고 목도 아팠다ㅠㅠ) 나는 교생실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수업도 진행했는데, 여러 선생님께서 내 수업을 참관한 후 피드백을 주셨다.

12:00~13:00 점심시간



내가 실습을 나간 모교는 맛있는 급식으로 유명했다. 여전히 맛있어서 감동♥ 보통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급식을 먹는다. 담당 선생님 외에 다른 분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 좋다. 식사를 끝내고 나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반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수업 외 시간에 만나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확실히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많이 친해질 것 같다.

15:50~16:10 청소시간



직접 청소 지도를 한다. 청소를 안 하는 학생은 없는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한다. 청소를 잘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기도 한다.

13:00~13:30 5교시 부서 교육



교생실습을 나오면 수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경영에 대해 배운다. 학생부, 교무부 등 학교 내 다양한 부서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해당 부서 부장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신다. '교사는 수업 준비 말고도 할 일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거기 살아보니 어때요? 캘리포니아로 간 20대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짱한 햇볕, 오렌지와 금문교만 떠오르는 사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턴 캠퍼스에서 교환학생을 보낸 두 사람에게 리얼 미국 라이프에 대해 물어봤다.



교환학생

오수연

인스타그램 @osupenguin
17년 8월부터 18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거주함.
한 달 생활비 약 120만원

교환학생

김세희

인스타그램 @_heeinstaa
18년 9월부터 19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거주함.
한 달 생활비 100만원 이상

01 캘리포니아에서 숨통이 트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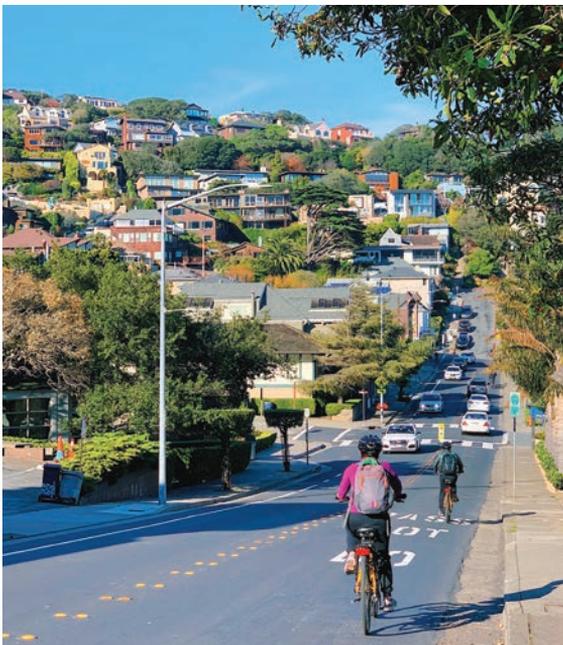
오 무턱대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누구든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별거 아닌 습관인데 기분 좋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는 일도 종종 생겨요. 이틀테면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오늘 하루는 어땠냐며 말을 거는 정도? 다들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김 한국에 비해 개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해괴한 옷을 입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춤을 추든, 운동장에 대자로 누워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서 그 모든 게 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이고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덕분에 캘리포니아에서의 생활이 자유롭다고 느껴졌어요.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합부로 갖지 않으니까요.

02 흔한 캘리포니아 교환학생의 하루

오 아침 6시쯤 일어나 운동을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10시 수업을 갑니다. 2시 수업까지 끝나면 그날의 필수 일정은 끝! 그 이후론 정말 여유롭게 보내요. 캠퍼스 잔디 위에 비치 타올을 깔고 영화를 볼 때도 있었어요. 우버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가서 놀다 올 때도 있었어요. 카페에서 현지인 친구한테 비니 뜨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요. 기숙사 방에서 저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많았답니다.

김 한국에서 보내는 일상과 비슷했어요. 수업 듣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고, 다시 수업 듣고, 과제 하는 그런 일반적인 대학생의 하루였죠. 미국 대학은 교환학생에게 관대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과제가 없는 시즌에는 공강과 주말을 활용해 여행을 다녀왔어요. 학교 주변의 뉴포트, 헌팅턴비치부터 뉴욕, 보스턴, 플로리다, 캐나다까지요.



03

이런 사람에게
캘리포니아를 추천한다

오 얽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마음껏 할애하고 싶은 사람,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यो. 여유로운 곳이라고 해서 경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 경우엔 학교 수업이 절대평가여서 대충 했는데 결과가 참담했어요. 딱 제가 한 만큼 나와서 '이대로 뒤흔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들과의 경쟁이자기보다 자기와의 경쟁이예요.

김 날씨가 기본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यो! 비 오고 미세먼지 많은 날엔 축 쳐지다가도 햇볕이 쨍쨍하면 금세 밝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로 오면 365일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날씨 때문에 우울해지진 않거든요. 여행은 날씨가 반이 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는 거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04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교통이 최악인 게 단점

오 캘리포니아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예요. 그래서 지하철만 타도 대마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역을 나와서 할리우드에 내리면 불법 호객 행위가 판을 치고요. 동양인 여자는 쉽게 인종차별 대상이 되기도 해요. 차 안에서 클랙슨을 울린 다음 큰 소리로 조롱하는 식이죠. 그래도 총 맞을까봐 무서워서 모른 척 지나가곤 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지하철을 혼자 탈 수 없어요.

김 캘리포니아는 땅이 넓어서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요. 한 학기 이상 사는 유학생 중에 차를 렌트하거나 구입하는 친구도 꽤 봤어요. 그만큼 교통이 불편하단 뜻이죠. 기사사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를 가려면 30분 정도 걸어야 했고요. 다른 곳은 모두 우버를 이용해야 했어요. 생활비에서 교통비를 무시할 수 없었죠.

05

5년 뒤 당신이 살 곳은?
캘리포니아 VS 한국

오 저는 한국이요.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편이고 대중 교통도 잘 되어 있고 인터넷도 빠르고. 게다가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나게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느라 괴로웠어요. 다행히 웬만한 약은 마트에서 살 수 있지만,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정말 난감해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한국이 살기 편리한 나라인 거 같아요.

김 저 같은 경우는 꼭 캘리포니아가 아니더라도 외국에 정착해 살고 싶어요.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살기 편한 나라긴 하죠. 하지만 운이 좋다면 제 앞에 남은 생이 80년 정도는 될 텐데, 남은 시간은 다른 나라에 살아보는 것도 관찰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 살았으니깐요.



“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간 이유
• 사시사철 날씨 좋은 곳을 찾아서
• LA,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가 가까워서
• 근교에 디즈니랜드 같은 관광지가 많아서
• 영어권 국가니까



여행에서 본전을 뽑는다니, 본전이 뭐길래

10명이 있다면 10개의 여행 스타일이 있다

대만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가 10분 단위로 설계된 나노 스케줄 표를 보여주었다. “와, 이걸 다 할 거야?” “그럼!” 꼭 가고 싶은 맛집까지도 동선을 따라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스트레스 안 받아?” “받지, 당연히. 그래도 미리 알아보고 내 취향에 맞게 계획 짜는 게 난 즐겁더라. 낯선 데서 덜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오전 11시쯤 이미 하루 치 체력이 바닥나고 말 나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스케줄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같이 안 떠난 게 다행일지도 몰랐다.

좋은 여행에는 정답이 없다.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있을 뿐. 다만 동행이 있다면, 서로 여행 스타일이 맞아야 더 즐거운 여행이 되긴 한다. 미리 짠 촘촘한 스케줄을 따라 하루를 쓰고 노곤한 피로 속에 잠드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그만큼 부지런히 걷고 보고 먹어줄 동행이 필요하다. 반대로 느긋하게 쉬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고 채근하지 않을 동행이 필요하겠지.

한때 화제가 되었던 한국식 MBTI(짜장 vs 짬뽕, 부먹 vs 짬뽕, 물냉 vs 비냉, 밀떡 vs 쌀떡, 참고로 저는 짜짜비밀★)를 여행에 적용해본다면 대략 이렇지 않을까? 이왕 가는 여행 꼼꼼히 정보를 찾고 동선을 짜는 ‘계획형’ vs 여행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제맛이라 생각하는 ‘즉흥형’. 일찍 일어나 조식도 먹고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아침형’ vs 밤늦게까지 재밌게 놀고 늦잠 자는 ‘저녁형’. 남는 건 사진뿐이므로 추억 남기기에 몰두하는 ‘사진형’ vs 잘 찍은 사진을 건지려고 애쓰기보다 눈앞의 풍경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경험형’. 여행에서 먹는 즐거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맛집형’ vs 먹는 것은 그럭저럭 중요하지 않은 ‘끼니형’. 나 같은 경우 즉저사맛형에 가깝다. 아닌가, ‘즉저경까인가... 물론 실제 여행엔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하루에 한 가지만 하는 여행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의 역사를 쌓아오며 찾은 내 여행 스타일은 ‘하루에 한 가지만 하는 여행’이다. 떠나기 전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예약하는 정도의 준비성을 갖고 있고, 그 밖의 일정은 현지에서의 나에게 맡겨둔다. 틈틈이 여행지의 정보를 찾아보긴 하지만 계획을 짜다가 보다 내가 가면 좋아할 곳과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을 파악할 뿐이다.

쇼핑을 좋아하지 않고 기념사진을 남기지도 않는 타입의 나는 사람들이 쇼핑과 기념사진을 위해 많이 찾는 곳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어딜 가면 가장 느긋한 마음(=이 맛에 여행하지 싶은 상태)으로 머물게 될까를 찾아본다.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만 하는 계획을 세운다. 아무 할 일 없는 하루는 좀 허전하니까 #일일# 정도로 나를 만족시킬 계획은 필요하다. 오늘은 해변에 나가봐야지. 오늘은 친구가 추천해준 식당에 가야지. 오늘은 숙소 해먹에 누워 책맥을 해야지. 그 정도의 느슨한 계획이 좋다. 나머지 시간들을 자유롭게 비워둘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우연을 기다릴 수 있으므로.

물론 그것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알게 된 사실이다. 나는 사실 여행지에서 새로운 곳을 많이 들르는 데 큰 욕심이 없고, 내 마음이 편한 장소에 머문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이미 촘촘한데, 여행을 하면서까지 촘촘한 시간을 살고 싶진 않았다. 내가 정한 스케줄에 스스로 쫓기는 기분을 느끼면서 바빠 움직이는 것도 싫었다. 그런 자신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편안한 여행을 준비해주는 가이드가 된 셈이다. 이 1인 여행사는 오직 한 명의 고객, 나를 위해 움직인다.

여행에서 본전을 뽑는다는 게 대체 뭘까?

여행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일상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지만, 여행에서는 오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중요해지고, 그 방식이 각자의 여행 스타일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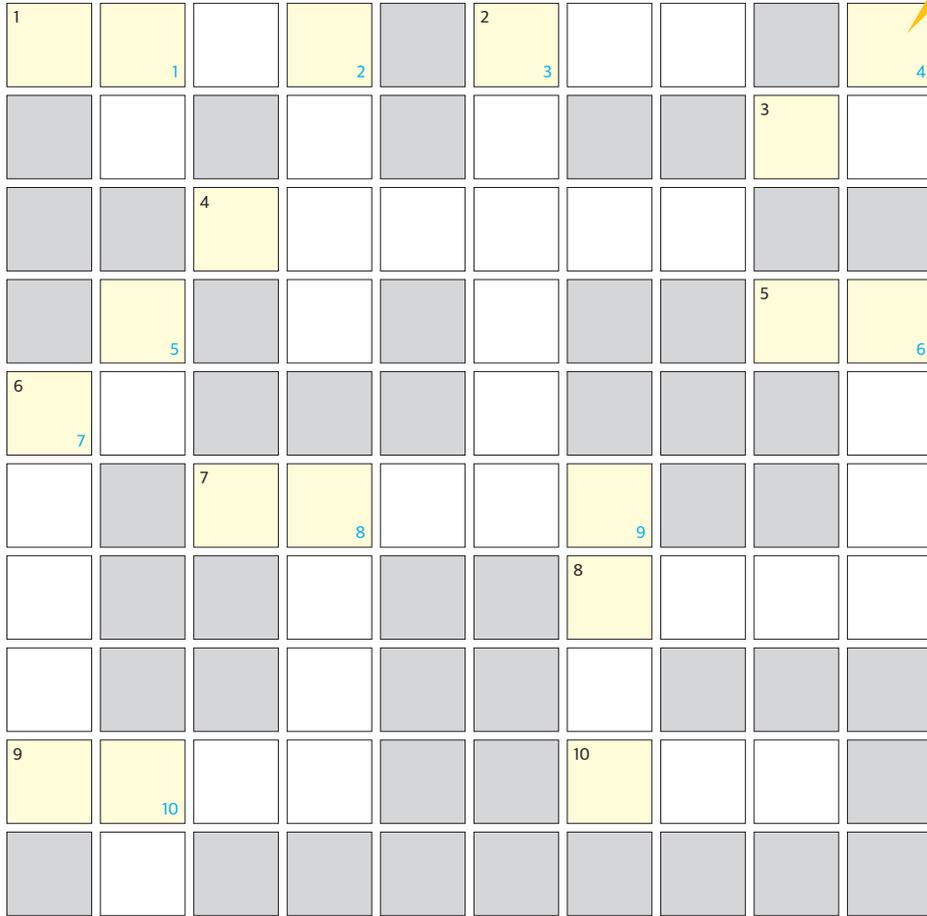
가끔 여행지에서 너무 한가로운 나를 보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본전은 뽑아야지’ 하며 걱정해주는(?) 여행자들도 있었다. 나로서 이왕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욱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 여행에서 ‘본전을 뽑는다’는 게 대체 뭘까? 뭐가 본전일까? 여행에 얼마를 들였든, 어디를 가든, 진짜 본전이란 건 내가 만족하는 선을 말할 것이다. 그 만족도란 것은 결국 사바사. 내가 즐겁고 행복했던 여행이라면 그게 바로 본전을 찾은 여행이다. 그러니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어떤 방식으로 여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만족은 오롯이 나의 것. 추억도 오롯이 나의 것.

그래서인지 여행을 할수록, 여행이 인생을 담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이번 삶이 이미 출발해버린 한 편의 긴 여행이라면, 나는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 걸까? 일단 남들 가는 데를 다 가보는 여행과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스스로 찾아보는 여행.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추억을 남기는 여행과 한군데 머무르며 오래 기억할 추억을 만드는 여행. 내가 좋아하는 여행의 방식을 찾는 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행도 ‘남들처럼’ 하려는 사람은, 사는 것도 남들처럼 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기명균의 낱말퍼즐

퍼즐 앞에서 승부욕이 샘솟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 용어는?



888호 낱말퍼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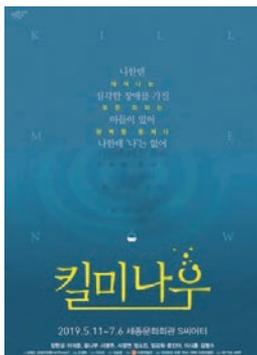
Special Gift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킬미나우

총 3분(1인 2매)을 선정해 2016년 초연 이래,
매회 전석 기립 박수의 기쁨을 토하고 있는
웰메이드 연극 <킬 미 나우>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기간 2019년 5월 13일~17일
당첨자 발표 2019년 5월 17일(DM으로 개별 공지)
공연 일시 2019년 5월 24일(금) 20시



가로 열쇠

1.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코드로 등록할지 말지를 놓고, 2019년 5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HA) 때 정식 논의하기로 합의한 건강 문제. 일상생활보다 00을 우선시하는 증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일어날 때 '0000'로 분류한다.
2.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이나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후회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감정적 반응. #000을느끼지않는싸이코패스
3. 1)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2)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3)리처드 탈러, 캐스 스타인이 공동 집필한 베스트셀러 제목. #똑똑한선택을이끄는힘
4. 한정된 공공 자원을 여러이서 이용할 때, 개개인의 자원에 맡기면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자원이 남용되거나 고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그오오오버
5. 강아지가 보호자 가족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서열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여 통제가 안 되는 현상. #00증후군
6. 1)성인이 된 후에도 현실을 부정하고 언제까지나 자신이 00이기를 바라는 현상을 [가로10] 콤플렉스라 한다. 2)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타인에게 칭찬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심리 현상을 착한 00 콤플렉스라 한다.
7. 핀란드 사회학자 에드워드 00000가 주장한 이론으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남녀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상대방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 #00000효과 #친동생같다는말은완곡한거절?
8.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한창 사임 압력을 받던 리처드 닉슨은 TV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프레임 #조지0000
9. 주변의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남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 #그리스신화 #0000증후군
10. 웬디, 팀커벨과 함께 후크 선장에 맞서는 네버랜드의 소년.



세로 열쇠

1. 사람이 죽음의 코앞까지 가거나 죽음을 이르렀다가 다시 깨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경험자들에 따르면 의사의 사망 선고가 들리고, 정신이 육체와 분리되고,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 #00체험
2.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 필립 셰이버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개인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불안형/회피형/안정형으로 나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0000이다.
3. "둘 다 범행을 자백하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둘 다 범행을 부인하면 징역 1년을 구형할 거야.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범행을 부인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자백할 경우, 자백한 사람은 풀어주고 부인한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할 거야."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둘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백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징역 5년씩 살게 된다는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
4.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인식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가리켜 00부조화라 부른다. #정신승리의니쁜에
5. 심리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부모, 친구, 연인 등 사람이나 특정 사물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상담사에게 느끼는 것. #transference
6. 1904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심리학자. 0000의 개로 알려져 있는 조건반사 실험을 입증했다. #이반페트로비치0000
7. 서로 관련 없는 현상들 사이에 규칙이 있을 거라 믿고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고자 애쓰는 심리 현상. '그 선배는 나랑 이름 획수가 같아! 그러니 우린 천생연분일 거야!'
8. 다음은 기사 제목들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취업 0000 때문에 마트서 고등학생 흥기로 찌른 20대" "외상후0000장애, 뇌 신경 영양 인자와 관련 깊다고?"
9.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하거나 벌을 줄 때, 높은 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나 벌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야 한다. #0000효과
10.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바늘도둑이소도둑된다

#대학생만을_위한_금주의_꿀정보

안예은 콘서트



마녀성의 춘몽가
ticket.interpark.com

2015년 'K팝스타 5'에서 준우승을 한 안예은이 <마녀성의 춘몽가>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식 데뷔 이후 3년간 쉬지 않고 30곡 이상 자작곡을 발표한 지금까지의 활동을 총결산하는 취지에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해. 특히 이번 공연은 데뷔 이후 매진 사례를 이어오며 팬들과 만나왔던 안예은이 기획한 공연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봄날의 밤에 마녀가 성에서 부르는 서늘한 낭랑특집 컨셉이라고 하니, <마녀성의 춘몽가>로 이른 여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공연 일정 5월 26일(일)
공연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N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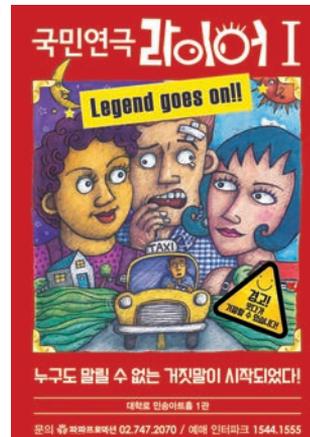
뮤지컬 <김종욱 찾기>
ticket.interpark.com



뮤지컬 <김종욱 찾기>가 오픈런 중이다. 여자 주인공이 첫사랑 '김종욱'을 찾아다니며 운명적인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로 첫사랑에 대한 설렘과 그리움이 떠오르는 로맨틱 코미디라. 사랑에 빠지고 싶은 솔로, 사랑을 키우고 싶은 연인들에게 강력 추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봐.
공연 일정 오픈런
공연 장소 대학로 컬처스페이스 언

파파프로덕션

연극 <라이어>
ticket.interpark.com



연극 <라이어>가 대학로 민송아트홀 1관에서 오픈런 중이다. 두 여인을 두고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하던 택시 운전사가 엉뚱한 거짓말을 하며 벌어지는 하루 동안의 해프닝을 담았어. 기막힌 거짓과 어설픈 진실로 웃음을 선사하는 <라이어>가 보고 싶다면 인터파크에서 예매 고고!
공연 일정 오픈런
공연 장소 대학로 민송아트홀 1관

HR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게임빌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사업, 게임 마케팅	gamevil.recruiter.co.kr	~ 6.3	2019년 8월,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 졸업자 지원 가능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사)한국조사기자협회, 한국일보	제7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논술	~ 5.2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1명) 상금 100만원, 한국일보사장상(1명) 상금 100만원 조사기자협회장상(우수상, 5명) 상금 10만원, 조사기자협회장상(장려상, 10명) 도서상품권 3매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은 한국일보 오피니언 코너에 게재 특전
BC카드	BC카드 페이스북 QR결제 아이디어 챌린지	마케팅, 콘텐츠	~ 6.3	대상(1팀) 300만원 및 상장, 우수상(1팀) 200만원 및 상장 / 최종 선발된 총 5팀 전원 2박 3일 상해 QR결제 견문 자유 배낭여행(항공, 숙박) 지원
와이파이도시락	제6회 와이파이도시락 마케팅 공모전	마케팅	~ 6.10	대상(1팀) 200만원,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은 한국일보 오피니언 코너에 게재 특전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기간	지원 마감	활동혜택
현대자동차	세일클로버찾기 멘토	7개월	~ 5.15	1365 봉사 활동 인증(활동 종료 시, 전체 일정 참가자에 한함), 멘토링 활동비 및 멘토 활동 보조비 지원
수림문화재단	수림문화예술 서포터즈 3기	7개월	~ 5.19	매달 활동비 지급, 수료증 수여, 활동집 제공
쥬씨	쥬씨 서포터즈 주스터스19 1기	3개월	~ 5.23	활동 인증서 발급, 현금 10만원 및 쥬씨 3만원 쿠폰 제공, 활동 우수자 쥬씨 365 FREE VIP 쿠폰 제공, 학교에 딸바 100잔 나눔 트럭 방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4기	6개월	~ 5.26	소정의 원고료 지급, 우수 활동자 시상(팀/개인 개별 시상), 활동 종료 후 수료증 수여 등
유니버설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포터즈 You랑 5기	11개월	~ 5.30	각 정기공연 티켓 1매 제공, 해당 공연 티켓 추가 구매 시 30% 할인 혜택, 발레단 행사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서포터즈 전용 특별 이벤트 및 각종 선물 증정
하나금융그룹	제13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약 2개월	~ 6.5	활동 수료자 전원 해외 봉사 활동 기회 부여, 활동 수료자 전원 인턴 또는 신입 공채 시 우대 (활동 우수자 서류 전형 면제), 월 활동비 지급, 우수 활동 팀 장학금 지급, 활동 수료자 전원 수료증 지급 및 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 하나금융그룹 프로모션 행사 진행 시 우선 참여 혜택 제공

강연·이벤트

기업명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장소
내유위강	연극 <자메이카 헬스클럽>	ticket.interpark.com	~ 5.31	대חק로 해피씨어터



에세이를 쓰고 싶으세요?

20대라면 누구나 대학내일에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A4 1장(원고지 10매 이내) 분량으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글이 실린 분들께 원고료 10만원을 드립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본문에 이름/연락처 기재 필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신 써 드릴까요?

'과 단톡방 나갈 때 뭐라고 말하지?', '부모님 생신 문자엔 뭘 써야 하는 걸까?' 은근히 고민되는 생활 속 소소한 상황들. 대학내일에 제보해주세요. Ctrl c + Ctrl v 만 하시면 되도록 대학내일이 모범답안을 대신 써 드립니다.



메일 hyewon@univ.me

※ 본문에 이름/연락처 기재 필수



예매 순위 1위 연극
실전연애코미디

버라이어티
코믹 연애극

작업의 정석

연극

사랑은, 끝없는 작업의 연속!
선수들의 밀당승부가 시작된다



예매 인터파크티켓 **작업의 정석** 검색 1544-1555 | 문의 02-766-7667 대학로 연극 순위아트홀 1관

대한민국 1등 창작뮤지컬!

WELCOME
OPEN RUN
컬처스페이스 엔유

데이트 No1.
♥뮤지컬♥

김종욱 찾기



예매 인터파크티켓 **김종욱 찾기** 검색 1544-1555 | 문의 02-766-7667

2019년 하계

UST 연구인턴십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소 현장을 직접 체험하라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선발인원 | 하계 100명 내외

| 지원자격 | 대학교 학부 3, 4학년생 및 석사과정 재학생,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로 해당 학교가 3년
학부제인 경우에 한하여 2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
(8월 졸업예정(유예)자 지원 가능 / 휴학생, 졸업생은 지원불가)

| 모집공고 | 5. 10.(금) 10시 UST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접수·선발 | 원서접수 2019. 5. 10.(금) ~ 5. 23.(목)
(합격자발표 : 2019. 6. 17.(월) 17시, UST 홈페이지)

| 인턴기간 | 2019. 7. 1.(월) ~ 8.23.(금) / 8주

- 참가자 전원 월 활동비 지급
- 인턴 전원 출연(연) 석박사급 연구자와 1:1 멘토링 제도
- 참가자 역량강화를 위한 발대식/해단식 진행
- 이공계 소양교육(논문작성법 등), 인턴 간 네트워킹 기회
- 인턴기간 중 인턴 전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